

편의주의의 위험



지역 대표 한 인 상 장로

최 근에 와서 나는 자주 일관성에 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사람이 지니는 저마다의 개성과 인품, 취미와 능력의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생활해야 하는 사회성을 기본 원리로 하는 한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가 준수해야 할 질서나 규범이 요구되고 또 제정 시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유익, 곧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질서 규범이 운용될 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편견이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잃고 편리하게 해석되거나 합리화되는 데 혼란과 파괴가 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지 않고 태어나는 일이나 죽는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 축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다. (교성 130:20 참조)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의 땅에는 다섯 개의 시온의 스테이크와 세 개의 선교부가 세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뜻과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죄 값을 갚으셔서 우리 모두가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므로 (교성 88:120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 일관성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도록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인간이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갈망하셨던 마음이나 그후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마음은 하나로 같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본질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지 삶의 형식이나 치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의 밤을 실제로 갖는 것과 갖지 않으면서 갖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같을지 몰라도 하나는 가정의 밤을 가진 것이고 후자는 갖지 않은 것임은 너무도 분명해서 이야기하는 일조차 어이없게 느껴지지만 바로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인간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신권 역원과 성도들은 쉽게 목과해선 안될 것이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지부와 나의 와드와 나의 스테이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주님의 복음의 원리와 계명을 지키며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성탄의 종이 울리는 동안 어린 아이도 그 소리를 듣고 어른도 듣는다. 남자도 듣고 여자도 듣고 가난한 사람도 듣고 부자도 들으며 지위가 높은 사람도 듣고 낮은 사람도 듣는다.

나의 작은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기심과 사치와 교만을 정리하여 영원한 발전을 저해하는 편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선다면 이 성탄절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값지게 기억되어야 할 훌륭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한국 서울 지역 체육 대회

지난 10월 9일 서울 동대문 상고에서 제 1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서울 지역 체육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은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 본부로 떠났기 때문에 김 창선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오전 9시 30분에 입장식을 가졌으며, 이날 모임을 통하여 오랫동안 만난 성도들은 반가운 인사와 우정을 함께 나누었다.

처음 육상으로 시작된 이날 체육 대회는 농구·축구·배구 등의 구기 종목과 오자미 던지기, 농악, 차전놀이 등 다채로운 경기로 일관되었다. 손이 부르토도록 열

심히 참가한 줄다리기는 건강하고 힘찬 말 말일성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또한 각 스테이크 대항 응원전에서는 소속 스테이크의 힘을 과시하듯 성도들은 열띤 응원을 하였다.

어둠이 깃들 때까지 계속된 이날의 체육 대회에서 서울 서 스테이크가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서울 북 스테이크가 2위를, 서울 스테이크가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폐회사를 통하여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은 멀리서 참여한 성도들에게 감사사를 전했고, 다음에는 더욱 훌륭한 체육 대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 서울 선교부 가족 전시회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 서울 선교부 가족 전시회가 서울 시청 앞 지하철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영원한 가족... 단란한 가족은 국력”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 전시회는 성황리에 끝났다. 강한 가족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짜여진 전시회였다. 전시회의 주제가 적힌 커다란 무지개 아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방문자들은 전시장을 돌아본 후에 가정의 밤을 소개하는 필름스트립을 보기도 하였다.

17,000명의 관람자가 소책자 7천 권을 가져 갔으며, 115권의 물문경을 사 가지고 갔다. 그들 중 650명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선교사의 방문을 요청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번 전시회는 방문자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가정을 강화시켜 주는 복음을 가르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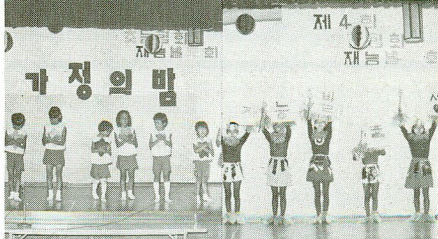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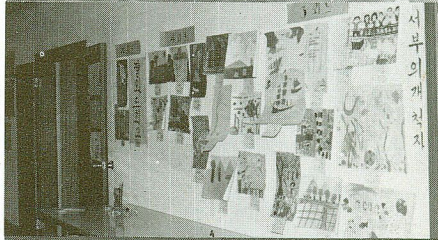
선교사들은 한국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도와 주고 이땅에서 교회가 더욱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재능 발표회

지난 8월 18일 제4와드에서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재능 발표회가 열렸다.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열린 이 모임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무용과 연주를 통하여 복음 정신을 잘 표현해 주었으며, 아울러 미술 전람회도 함께 가졌다.



서울 동 스테이크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지난 8월 25일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재능 발표회를 가졌다. 무용, 연주 그리고 연극 발표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1년 동안 닦아온 재능을 힘껏 발휘하였다.



부산 스테이크 운동회

부산 스테이크 탄생을 축하하는 운동회가 지난 10월 9일 부산 진 국민학교에서 700여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탄생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우렁찬 함성이 주위에 메아리쳤다.

각 와드 지부의 성도들은 선수들을 응원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다. 장 재환 부산 스테이크 부장은 새로이 출범하는 부산 스테이크 형제, 자매들의 힘찬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시상식을 마칠 때에는 주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다.

부산 스테이크 제 4 와드는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한편 이날 운동회의 큰 행사였던 줄다리기와 배구시합에서 마산 와드가 우승하였다. 부산 스테이크 탄생을 축하하는 운동회는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성도들이 깊은 우정을 나누며 막을 내렸다.

